

北韓政治體制의 權力構造研究

李 容 弼

(서울大學校 師範大 教授)

<目

- 머릿말
- I. 北韓體制의 全體主義的 權力엘리트
- II. 權力體系의 構築
- III. 權力構造의 特徵

次>

- IV. 絶對權力體系의 正當化
- V. 繼承을 위한 權力構造의 改編
- VI. 金正日 權力繼承의 問題點
- VII. 繼承後 權力構造變化의 展望

맺는 말

머 릿 말

本論文은 北韓政治體制의 權力構造를 分析하는 데 焦點을 두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政治體制는 다른 共產主義體制에서 찾아 볼 수 없으리 만큼 鎮閉의이며 또 秘密의 帳幕에 싸여 있기 때문에 資料의 接近이 매우 어려운 形便에 놓여 있다. 이 分析에서 使用된 모든 資料들은 國內 研究機關과 言論機關들에 의해서開放된 것이므로 이러한 資料들을 可能한限體系의으로 活用하도록 努力하였다.

本研究에서는 먼저 北韓政治體制의 全體主義的 엘리트의 性格을 規明하고 이에 의거해서 權力體系의 構築段階, 특히 金日成의 唯一體系確立을 위한過程, 權力構造의 核으로서의 勞動黨 position, 所謂 金日成個人의似而非carisma, 族閥政治強化 및 革命繼承論에 의한 唯一體系確立, 第6次黨大會를 契機로 해서 나타난 金正日 權力繼承을 위한 權力構造改編의 特徵 및 그 問題點, 그리고 金正日 權力繼承 後에 豫想되는 權力構造內의 力學的 變化展望等을 다루게 된다.

本研究는 특히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의 支援에 의해서着手되었음을 밝히며 아울러 社會科學研究所에 대해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그러나 本研究의 未熟한 部分이나 內容에 대해서는 研究者의 責任을 덧붙이고자 한

다. 다만 本論文의 앞으로의 보다 完全한 體系的 研究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I. 北韓體制의 全體主義的 權力엘리트

프리드리히 (Carl J. Friedrich)와 브르제진스키 (Zbigniew Brzezinski)에 의해서 提示된 全體主義의 모델에 의하면 그 典型的 諸特徵을 公式的 이데올로기, 一人獨裁者에 의해서 指導되는 政黨, 怖恐의 體系, 大衆媒體의 獨占, 軍의 支配權獨占, 集中的으로 統制된 經濟 등이라 假定되고 있다. 이러한 諸特徵은 스탈린統治 아래 있어서의 蘇聯政治體制뿐만 아니라 특히 北韓 共產主義 政治體制에도 거의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全體主義의 모델에 의거해서 北韓에 있어서의 權力엘리트에 대해서 分析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와 브르제진스키가 觀察했던 바와 같이 “소련에 있어서 全體主義의 政府는 스탈린이 初期의 革命同僚들을 肅清함으로써 두드러지게 出現하게 되었다.”⁽¹⁾ 사실상 레닌과 볼셰비키黨에 의해서 確立된 共產主義 政治體制는 스탈린 이후에 過激化되고 스탈린 政治體制에로 變換시키게 된 것이다. 이것은 터커가 말하는 單一政黨支配 아래의 革命的 大衆運動體制 (revolutionary mass-movement regime)⁽²⁾로 나타났다. 革命的 大衆運動體制는 軍事的, 集權的 革命政黨에 의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政治的 權威의 새로운 基礎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體制의 組織은 權威主義의인 것으로 發展되었다. “모든 運動體制가 根源的으로 革命的 力動性을 가지고 있으며”⁽³⁾ 또 그러한 運動體制는 支配의in 個人的 피어서 멀리티에 의해서 引導된다⁽⁴⁾고 하는 命題은 소련의 스탈린과 北韓의 金日成의 唯一體系에 그대로 적용된다. 터커가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全體主義的 獨裁政治는 傳統的인 形態의 權威主義의 支配와는 달리 大衆의 社會的 基盤과 似而非大衆的性格을 가진 獨裁者라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現代的 全體主義는 權力의 集

(1)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p. 295.

(2) Robert C. Tucker, *The Soviet Political Mind* (New York: W.W. Norton & Co., 1971), p. 8.

(3) *Ibid.*, p. 13.

(4) *Ibid.*, p. 17.

中되고 官僚化된 體制라고 하겠다. 全體主義를 다른 傳統的 獨裁政治와 區別시키는 것은 統治에 있어서 테러의 種類와 그 정도에 있다고 하겠다. 全體主義體制는 集團的인 強制勞動收用所와 暴力에 의한 肅清과 같은 大量的 테러方法을 행사하는 데 있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獨裁的 테러(dictatorial terror)와 全面的으로 浸透하는 全體主義的 테러(totalitarian terror)를 區別하고 있는데, 前者は 體制에 대해서 확고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抑壓하기 위한 것이며, 後者は 政治的 敵對者들을 박멸시킬 뿐만 아니라 大量의 肅清과 集團強制收容所 등에 의해서 無害한 大衆의 多수를 숙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後者の 테러가 全體主義的 政府의 本質이라고 하겠다.⁽⁵⁾ 노이만(Sigmund Neuman)도 이것을 가리켜서 革命的인 것으로서의 全體的 國家의 力動性(the dynamics of the total state)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리한 全體主義的 體系에 있어서의 政治過程은 永久的 革命 또는 永久的 肃清(permanent purge)에 의해서 特徵의으로 表現될 수 있다. 이리한 意味에서 “全體主義는 永久의 肃清의 體系”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全體主義 안에서 移動(mobility)과 不安定(instability)을 助長한다.”⁽⁶⁾ 그래서 全體主義는 體系안에서 不斷한 再編을 필요로 하게 되며 동시에 權力의 지나치게硬直化된 限界線을 방지하려고 企圖한다. 프리드리히와 브르제진스키는 全體主義的 테러를 이데올로기적 狂信에 의해서 설명하면서 테러는 全體主義的 體系의 中樞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리하여 全體主義的 體系는 體系의 要求와 超越的 意識의 압력 아래서 작동하는 하나의 機械的 巨人(mechanistic Leviathan)이라고 볼 수 있다.⁽⁷⁾ 여기서는 權力엘리트理論의 視角과 北韓 政治體制의 全體主義的 支配의 脈絡을 결부시켜서 北韓의 權力엘리트의 構造와 性質을 分析하고자 한다.

II. 權力體系의 構築

北韓共產主義 政治體制에 있어서는 다른 諸共產主義 政治體制와 같이 共產

(5) Hannah Arendt,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1), p. 315.

(6) Zbigniew K. Brzezinski, *The Permanent Pur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p. 30.

(7) Tucker, *op. cit.*, p. 28.

黨이 權力構造의 指導的 核心을 이루고 있다는 데 特徵이 있다고 하겠다. 共產黨은 國家의 모든 權力의 源泉이며, 國家機關은 共產黨의 權力에 의해서 결정된 政策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共產黨으로부터 委任된 權力を 행사하는 데 불과하다.⁽⁸⁾

北韓政治體制에는 外形上 三權分立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즉, 最高人民會議(立法), 中央人民委員會, 政務院(行政), 中央裁判所, 中央檢察所(司法)로 分離되고 있지만 사실상 「朝鮮勞動黨」에 의한 一黨獨裁의 外形的 機關에 불과하다. 이러한 意味에서 「勞動黨」은 權力의 核心이며, 그 頂點에 있는 金日成은 黨에서 總秘書, 黨政治委員(現在 政治局員), 行政에서 國家主席,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까지 黨責과 行政責을 獨점하고 있다. 그리고 黨軍事委員會 委員長과 國防委員會 委員長職을 獨점하여 軍統帥權을 장악함으로써 一人獨裁의 基盤을 確立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金日成은 教育, 文化, 產業經濟의 機關, 諸事業場, 職場, 團體의 長 및 次長, 重要幹部의 地位에 热誠黨員들로 하여금 獨점하게 하여 黨統制를 면밀하게 조직하였다. 이렇게 볼 때 金日성이 모든 權力構造의 頂點을 占有하고 있는 政治體制는 밀스(C Wright Mills)가 말하는 權力엘리트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통합된 權力의 複合體를 掌握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프리드리히와 브르제진스키의 表現을 빌리면 「全體主義의 獨裁」에 있어서 그 極端的 變形이라고 하겠다.

金日성은 이와 같은 全體主義의 唯一體系를 確立하기 위해서 피의 肅清을 斷行하여 왔기 때문에 北韓共產主義의 政治史는 피의 肃清史라고 일컬을 정도로 無慈悲한 權力의 戰爭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그는 全體主義의 테러手法에 의해서 그의 絶對的 權力構造를 鞑固하게 確立하게 되었다. 이러한 權力構造를 確立하기 위한 피의 肃清이 그 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權力엘리트의 형성과 그 분포를 결정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唯一體系確立을 肃清에 수반된 政治過程의 側面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第1期：單一共產黨의 登場

소련軍의 進駐로 金日성은 共產主義 政權을樹立하려고 企圖하였다. 그는 國內에 政治的 基盤이 없었기 때문에 多樣한 系譜의 共產主義者들 그리고 民族主義者들과 제휴해서 政權을 定着시키려고 하였다. 특히 모스크바 三國

(8) 北韓全書 上卷(서울 : 極東問題研究所, 1974), p. 101.

外相會議의 韓國問題에 관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金日成은 北韓地域에 소위 「民主基地의 創設」企圖와 共產黨을 中心으로 한 民族統一戰線의 形成 및 政權組織을 서둘렀다.

그러나 한편 金日成은 그의 權力基盤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國內派共產主義者로서 北韓에 基盤을 가지고 있었던 玄俊赫을 1945년 9월 28일에 암살시켰다.

1945년 11월에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2次 擴大委員會」에서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을 확대하는 문제」를 論議하고 共產黨과 거의 동일한 目的과 性格을 가진 新民黨(朝鮮獨立同盟의 後身)과의 合黨을 摸索하였다. 이兩黨의 合黨은 사실상 소련軍의 操縱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朝鮮獨立同盟의 武亭, 金昌滿, 李尙朝, 朴一禹, 許貞淑 등은 이미 共產黨에 가입하고 있었다. 1946년 8월에 兩黨은 「北朝鮮勞動黨」을 창설하고, 第1次 全黨大會를 소집하였다. 이 때에 나타난 劍力比率은 政治委員會에서 共產黨 3명, 新民黨 2명, 派別로는 소련派 2명, 延安派 2명, 國內派 1명이고, 黨中央執行部署에서는 共產黨 6명, 新民黨 4명, 派別로는 소련派 4명, 延安派 4명, 國內派 2명이었다.

1946년 6월 30일에 南勞黨과 北勞黨이 合黨되었고, 南勞黨의 總責이었던 朴憲永은 北韓政權의 副首相兼 外務相이 되었다. 이리해서 國內 共產主義 劍力이 總綱羅된 單一共產黨이 出現하게 되었다. 1948년 3월 27일에는 黨 2次大會에서 宗派主義의인 黨內一部 政敵을 紛彈하였고, 마침내 吳琪燮, 鄭達憲, 崔容達 등이 肅清되었다.

第2期：金日成權力體系確立

이 時期에는 延安派, 소련二世派 그리고 金日成派가 合勢하였지만 延安派와 소련二世派는 反金日成旗幟를 내걸고 金日成逐出의 機會를 노렸으나 1959년 金日成은 崔昌益, 朴昌玉, 楊界, 姜成民, 金民山, 張平山 등을 '國家反亂의 陰謀'를 企圖하였다는 罪目으로 肃清하였고, 1958년 3월에 延安派의 總帥인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 金科奉 등을 숙청하였다. 金日成의 이러한 스탈린式 肃清方法은 처음에는 소련派, 國內派, 延安派의 三者를 합류시켰고, 그 다음에 소련派와 延安派와의 提携로 國內派를 제거했다. 이어서 延安派를 분리해서 제거함으로써 黨指導部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리해서

權力構造에는 金日成派에게 無條件 盲從하는 者들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南勞黨과 北勞黨이 合黨된 후에도 南勞黨出身이 第1次 內閣에서 北勞黨出身보다도 더 많은 職責을 차지했고, 代議員數에 있어서도 南韓出身이 더 많았다. 都合 19명의 相級 中에서 남한出身이 10명, 북한출신이 9명, 代議員數는 南韓出身이 360명, 北韓出身이 212명이었다. 이러한 南勞黨 優位는 그들이 숙청되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1953년 7월 27 休戰協定締結 일주일만에 李承燁, 趙一明, 林和, 朴勝源, 李康國, 裴哲, 尹淳達, 李源朝, 白享福, 趙鏞福, 孟鍾鎬, 薛貞植 등을 北韓政權顛覆陰謀와 間諜, 泰러 및 宣傳煽動 行爲에 대한 事件이라는 罪目으로 숙청하였고, 1955년 12월 14일 朴憲永도 숙청되었다. 이리해서 마침내 黨과 政府機關 안에서 南勞黨系 및 南韓出身者들을 去勢하여 金日成一派는 權力核心에서 우세한 位置를 확보하였다.

第3期：金日成唯一體系強化

金日成은 몇 번에 걸친 派閥肅清에 의거해서 唯一體系를 명실공히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軍事部門에서 軍事委員會를 조직하여 軍事엘리트의 得勢와 함께 抗日遊擊隊의 軍事派가 등장하였다. 그 후 1966년 10월에 黨 第4期 14次 會議에서 金光俠, 黨政治委員會에 人民軍 上將 兼 民保相 金昌奉과 崔賢, 李英鎬 등 軍事엘리트가 頭角을 나타내었고 黨政治委員會 候補委員 12명 중에 石山, 許鳳學, 崔光, 吳振宇 등 4명의 軍部出身이 진출했다. 1967년에 단절되었던 소련의 經濟援助가 再開墾으로 말미암아 軍部勢力 중에서 經濟通과 軍事通 間에 政治的 軋轢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朴金喆, 李孝淳(黨僚派)등의 先經濟建設優位論과 軍部의 戰爭準備優位論이 對立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金昌奉, 許鳳學, 崔光 등 과거에는 소련軍事大學出身과 崔賢, 吳振宇 등 遊擊戰出身의 人民戰爭戰略信奉者들이 공존해 왔는데 그들 간에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金日成은 黨 第4期 15次全員會議에서 先經濟建設論을 주장한 黨政治委員 兼 秘書局 秘書인 朴金喆, 李孝淳 등 黨엘리트를 숙청하였고, 이어서 黨 4期 16次全員會議에서 民保相 金昌奉, 對南工作責任許鳳學, 人民軍總參謀長 崔光 등을 숙청하였다. 이리해서 黨官僚와 軍部派의 대대적인 숙청으로 黨과 軍部에는 金日成의 盲從者들만이 여전히 남게 되었고, 따라서 金日成은 그 자신에 대한 偶像化政策을 강력히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第4期：金日成—金英柱權力樞軸確立

金日成은自身을頂點으로하는權力構造를法的으로固着化시키려고企圖하였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第5次黨大會에서개편된黨指導機關에서崔庸健, 金一, 朴成哲, 崔賢等의序列은高位에머물러있었지만實質的인權力의核心은金日成과그의實弟인金英柱그리고金一의라인에놓이게되었다.⁽⁹⁾

〔表1〕黨政治委員會構成

年 度	派 別	延 安 派	소 련 派	金 日 成 派	國 內 派	計
46. 8	1次 黨大會	2	1	1	1	5명
48. 3	2次 黨大會	3	1	2	1	7명
56. 4	3次 黨大會	2	2	6	1	11명
61. 9	4次 黨大會	2	2	6	1	11명
66. 10	2次 黨代表者會議	1	4	9	1	15명
70. 11	5次 黨大會			11		11명

〔表2〕金英柱黨序列上昇過程

年 度	内 容	序 列
1 9 6 1	4次 黨大會前	47位
1 9 6 6	2次 黨代表者會時	26位
1 9 6 7	朴金喆, 李孝淳肅清後	16位
1 9 7 0	5次 黨大會	6位

특히黨政治委員會에서는全員이金日成派에의해서차지하게되었고,그후부터소위金日成派가權力構造안에서압도적으로차지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金日成一家의族閥政治의土臺가확고하게마련되기에이르렀다.이러한경향은〔表1〕과〔表2〕에여실히나타나고있다고하겠다.⁽¹⁰⁾

第5期：金正日의權力繼承準備

1970년에이르러實質的인權力의核心이金日成과金英柱에게놓이게되었으나그의아들金正日이1973年7月勞動黨中央委員會의非公開會議에

(9) *Ibid.*, pp. 103-107.

(10) *Ibid.*, p. 119.

서 秘書局의 組織 및 宣傳擔當秘書로 등용되었고 實質적으로는 金日成을 代理해서 黨의 指導體系를 掌握하고 特히 3大革의 總指揮者로서 君臨하게 되면서 世襲的 權力體系의 構築을 着着 進行시켜 왔다. 金正日의 急激한 登場과 때를 같이하여 第5次黨大會에서 黨序列 6位이었으며 實質的 第2人者였던 金英柱와 그의 側近集團이 權力의 核心으로부터 除去되었다.

1972년 12월에 採擇된 「社會主義憲法」은 國家主席을 新設하고 「政務院」을 監督하는 「中央人民委員會」를 設置하여 黨政治委員會의 元老와 主要 人物들을 이에 參加시켰다. 이러한 一連의 權力體系 内部의 變化는 黨과 政務院의 融合에 의한 効率化를 꾀하는 듯한 印象도 있는 듯이 보이지만 其實에 있어서는 金正日로 하여금 黨權을 掌握하게 하고 黨元老들로 하여금 政務院監督의 側面으로 돌리게 하려는 底意에서 나왔다고 評價된다. 1973년 2월 以後에 世代交替와 黨基層組織整備作業과 「3大革命小組」派遣에 있어서 金正日이 主導的 役割을 遂行함으로써 그의 權力繼承作業이 制度化되었거니와 이것이 1980年 9月에 開催된 第6次 黨大會를 契機로 해서 表面化되었다.

III. 權力構造의 特徵

1. 權力의 核으로서의 勞動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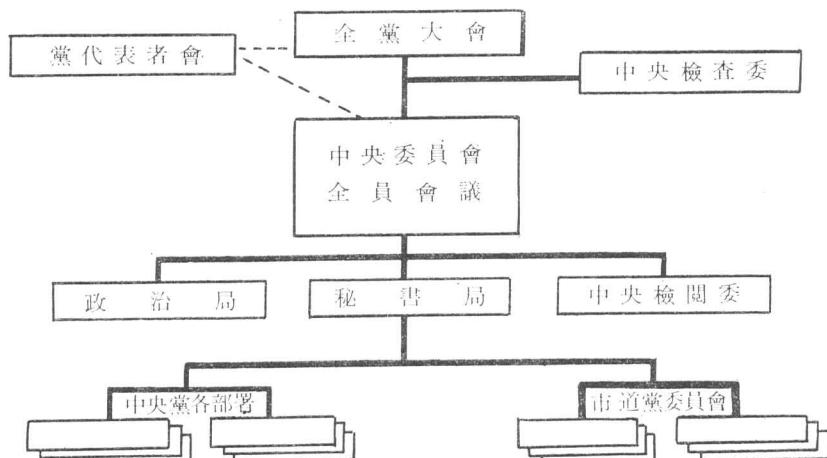
金日成에 의해서 主導되어 온 勞動黨은 “勤勞大眾의 先鋒的 黨組織部隊”라고 전제하고 “朝鮮人民의 利益을 대표한다”고 自處하였다. 黨의 組織成員은 형식상 “모든 勤勞者들 가운데서 勤勞大眾의 利益을옹호하는 先進鬥士들로서 조직한다”고 規定하였으나 몇 번에 걸친 숙청으로 말미암아 金日成에 맹종하는 者만이 黨의 上下高位職 全部를 차지하였다.

勞動黨의 規約 第21項에 의하면 ① 黨大會, ② 黨中央委員會, ③ 黨代表者會, ④ 黨委員會를 두고 있다. 勞動黨은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모든 黨政策 및 黨組織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立案 내지 執行하는 것은 中央委員會의 各組織이다. 黨의 중앙조직은 다음의 [圖表1]⁽¹¹⁾과 같다.

1) 黨員

먼저 우리는 北韓政治體制에 있어서 權力構造의 核으로서의 勞動黨黨員이

(11) *Ibid.*, p. 130.



〔圖表 1〕 労動黨 中央黨組織體系

全體人口의 수에 비추어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北韓의 被支配大衆이 小數의 黨員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勞動黨은 1945년 創黨以來 黨員을 증가시켜 왔다. 黨員數의 증가만을 본다면 外形上 大衆的政黨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開放的自由主義의 政治體制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당이 아니며 오로지 一黨獨裁政治를 위한 道具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勞動黨이 창건되었을 때의 黨員은 36萬餘名이었으나 1960년에 이르러서는 160萬名에 달하고 있는데 北韓全體人口와 對比하면 11.3%에 해당되는 것이다. 全黨大會를 기준으로 한 黨員增加狀況은 다음의 [表 3]에서와 같다.

〔表 3〕 労動黨 黨員 增加現況

年月日 區 分	黨員數	人口對比	黨細胞數	備考
	명	약 %	개	
1946. 8. 28	366,000	4	12,000	1次 黨大會
1948. 3. 27	750,000	8	28,000	2次 黨大會
1956. 9. 23	1,164,945	10	58,249	3次 黨大會
1961. 9. 11	1,311,563	12.2	65,000	4次 黨大會
1964. 11. 30	약 1,500,000			黨創建 20週年
1965. 10. 10	1,600,000			黨代表者會
1966. 10. 5	1,650,000	12.9		
1970. 11. 2	1,600,000	11.4		5次 黨大會

2) 黨中央委員會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몇 번에 걸친 숙청을 통해서 自派에 속하는 忠誠分子들만을 黨의 重要職에 配置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다음의 [表 4]⁽¹²⁾에서 中央委員會 構成의 派閥別 變化를 찾아 본다면 명백히 드러난다.

〔表 4〕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派別構成

派 別	全黨大會	第2次 1948. 3. 27	第3次 1956. 4. 23	第4次 1961. 9. 11	第5次 1970. 11. 2
甲 山 派(金日成)		7	11	35	32
延 安 派(中 國)		13	14	2	0
國 內 派		21	23	19	8
蘇 聯 派		14	11	3	2
無 所 屬		12	12	5	6
新 進		0	0	21	69
合 計		67	71	85	117

2. 最高人民會議：代議員構成

北韓政治體制에 있어서 最高人民會議의 地位는 勞動黨에 의해서 조종되는 지배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형식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選舉의 결과를 살펴 봄으로써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派閥別構成에서와 같은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5期 選舉에서 4期 代議員 457명 중 181명이 再選되고, 60%에 해당하는 276명이 탈락되었으며, 새로 증가된 84명을 포함한 336명(62.1%)의 新進人物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이것은 金日成에 의해서 직접 양성된 新進勢力에 의한 世代交替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그만큼 많은 肅清이 있었다.

〔表 5〕 4, 5期 再選 脫落者 比率表

當落者	期 別		3期代議員中		4期代議員中		備 考
	代議員數	比率(%)	代議員數	比率(%)			
再 選 者	212	55.4	181	37.5			
脫 落 者	171	44.6	276	62.5			
總 計	383	100	457	100			

(12) 李相禹, “政治엘리트와 大衆操作,” 北韓政治論(서울 : 極東問題研究所, 1976), p. 380.

〔表 6〕 多 選 別 代 議 員

期 別	第 4 期		第 5 期	
	代 議 員 數	比 率(%)	代 議 員 數	比 率(%)
多 選 別				
5 選 代 議 員			9	1.7
4 選 代 議 員	22	4.8	22	4.1
3 選 代 議 員	32	7.0	71	13.0
2 選 代 議 員	163	35.6	104	19.1
初 選 代 議 員	240	52.6	336	62.1
總 計	457	100	542	100

〔表 7〕 多 選 別 代 議 員 名 単

5選代議員

姓 名	主要經歷 및 職責	期 別
金 日 成	主 席	1~5
崔 庸 建	副 主 席	"
康 良 煒	"	"
金 一	政務院總理	"
南 日	" 副總理	"
白 南 雲	前最高人民會議議長	"
李 箕 承	前最高人民會議副議長	"
金 得 蘭	"	"
鄭 準 澤	政務院副總理	死 亡
計		9명

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表5, 6, 7〕⁽¹³⁾을 본다면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IV. 絶對權力體系의 正當化

北韓政治體制가 本質的으로 全體主義의 支配樣式의 極端的 形態이며 또한 金日成을 頂點으로 한 絶對的 權力體系를 核으로 해서 維持되고 있으므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合理的 體制를 正當化시키기 위한 造作을 大膽하게 劃策하였았다. 특히 그들은 金日成個人의 偶像化를 위해서 抗日遊擊 및 革命神話를捏造한다든지, 歷史를 歪曲하면서 金日成一家의 革命傳統을 造作하여 왔거나와 金正日의 權力繼承作業을 위해서도 虛構的「革命繼承論」

(13) 北韓全書, p. 147.

을 主張하고 있다.

1. 金日成個人의 似而非카리스마

韦伯 (Max Weber)에 依하면 「카리스마」의 指導者는 그의 全生涯에 있어 서 첫째로 超然한 姿勢 또는 超人間의 大膽性을 強調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창한 事件 또는 事態에 對한 積極的 關與를 浮刻시킨다. 前者の 段階에서는 「카리스마」의 指導者에 대한 崇拜心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心理的 猶豫期間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段階를 通過해서 被支配層의 忠誠心을 活性化시 켜서 後期에 들어오면서 「카리스마」의 指導者は 單純히 그의 非凡한 「리더십」의 資質로 말미암아 偶像化되고 또한 追仰되는 指導者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指導者는 오히려 變化를 為한 運動에 大衆을 動員시키는 過程에서 그의 資質과 「리더십」을 發揮하려고 企圖한다. 이리해서 「카리스마」의 所有者는 大衆에 依해서 認知된 中心的 人物로서 政治的 世界에 浮刻된다. 그러나 「韦伯」는 指導者가 追從者들의 反應을 繼續해서 끌어 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가 「카리스마」의 決定的 試金石이 된다고 指摘하고 있다. 여기에서 注意해야 할 것은 어떤 指導者가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그 與否는 追從者들의 服從하는 態度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追從者들에게 있어서 「카리스마」의 認知는 「카리스마」의 權力에 대한 指導者의 立證에 依해서 補強되는 것이다. 指導者는 追從者들로부터 個人的 獻身을 끌어 내기 위해서 그自身的 例外的 또는 非凡한 資質을 그 證據로서 提示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萬一 오랜 期間에 걸쳐서 그러한 證據를 提示하지 못한다면 그의 「카리스마」의 權威는 崩壞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脈絡에서 金日成의 所謂 似而非「카리스마」⁽¹⁴⁾를 構築하기 위한 個人的 崇拜 또는 偶像化의 虛構를 把握해야 한다. 金日成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抗日「계릴라」의 한 集團에 屬한 分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그의 活動을 誇張해서 偶像化하는 作業에 着手하였다. 그 첫 試圖는 主로 1931年부터 1945年에 이르는 期間의 「계릴라」神話에서 始作되었다.⁽¹⁵⁾ 이와 같은 神話는 소련

(14) 似而非카리스마에 대해서는 Carl J. Friedrich, "The Theory of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Issue of Totalitarianism," in R. Barry Farrell, ed., *Political Leadership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Chicago: Aldine, 1970), p. 22 參照.

(15) Glenn D. Paige, "Korea," in Cyril E. Black and Thomas P. Thornton, eds., *Communism and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 218.

軍에 依해서 北韓에 共產政權이 樹立된 後에 登場하게 되었다. 그러한 「개릴라」의 歷史的 妥當性을 論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金日成의 「개릴라」運動에 對한 神話는 北韓勞動黨의 重要한 精神的 基盤을 構成한 것이다. 金日成의 「개릴라」운동에 대한 神話는 多數의 自敘傳作家들에 의해서 事實과 달리 美化乃至 造作되었으며 심지어는 그의 抗日活動의 聖化까지 서슴지 않고捏造한 것이다.

이러한 金日成의 「개릴라」活動에 對한 神話構成은 무엇보다도 그의 人格에 있어서 超越的 또는 非凡한 資質을 浮刻시킴으로써 似而非「카리스마」를 確立시키려는 데 있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金日成이 祖國과 人民을 繁榮과 勝利에의 한 길로 確信을 갖고 이끌어 온 不屈의 指導者라고 높이 餘인들도록 强要되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政治, 經濟, 社會 및 文化的 모든 領域에서 卓越한 能力を 보여준 偉人이며 또한 奇蹟을 이루한 聖人인 것처럼 千編一律의 으로 宣傳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形成된 金日成의 似而非「카리스마」的 權威는 大衆으로 하여금 北韓政治體制에 대한 正當性을 無條件의 으로 受容하도록 强制하는데 使用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大衆은 다만 金日成에게 服從함으로써 所謂 그들의 聖스러운 革命에 對한, 任務를 다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리해서 社會學者 「아이젠슈타트」(S.N. Eisenstadt)가 指摘한 바와 같이 그 追從者들은 自發的 天稟, 提示된 手段에 依해서 또 그들의 指導者와의 直接的 關聯속에서 生存하려는 傾向을 갖게 된다.⁽¹⁶⁾ 北韓共產主義政治體制에서 모든 判斷과 決定은 金日成에 의해의 内려지고 또한 그것은 持續的인 共產主義革命이라는 特殊目的을 達成한다는 名分에서 神聖視된다. 金日成은 每事에 있어서 豫言者, 卓越한 軍事指導者 또는 革命의 天才로서 大衆에게 受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金日成의 似而非「카리스마」는 造作된 그의 人格의 聖化와 神話에 依據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權力 또는 北韓共產主義政治體制에 對한 唯一의 正當性的 根據는 그 自身의 個人的 似而非「카리스마」에 의해서 產生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의 似而非「카리스마」的 權威는 組織的인 「이데올로기」의 注入과 強壓 또는 恐怖手段을 併用해서 構成된 것이다.

(16) S.N. Eisenstadt, *Max Weber: On Charisma and Institution Build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 50-51.

2. 族閥政治의 強化

金日成에 의한 그의 族閥政治에 對한 虛偽捏造는 特히 所謂 “金日成同志略傳”(朝鮮勞動黨出版社, 1972年)에서도 찾을 수 있다.⁽¹⁷⁾ 即

金日成同志의 一家는 19世紀 60年代부터 祖國의 獨立과 人民의 自由와 解放을 위하여 싸워온 愛國의이며 革命的家庭이다.

金日成同志의 증조할아버지이신 김응우先生은 1866年 美國 侵略者들이 우리나라에 侵略의 척후대로 派遣한 海賊船「사만」號가 大同江에 侵入하였을 때 그를 擊沈시키는 싸움에서 偉勳을 떨치신 愛國者이시였다.

할아버지이신 김보현先生과 할머니이신 리보익女史 亦是 侵略者에 抗拒하여 剛毅하게 싸우신 愛國者이시였다.

아버지이신 김형식先生은 우리나라 反日民族解放運動의 卓越한 指導者이시였다.

金日成一家의 祖上 美化는 이와 같은 虛偽捏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의 모든 家族들을 革命鬪士인양 事實을 歪曲宣傳하고 있으며 特히 그의 어머니 강반석도 “祖國의 獨立과 人民의 自由와 解放”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든지 그의 三寸 “김형전도 열렬한 革命鬪士”라고 強調하고 있다. 심지어 그의 동생 김철주, 4寸동생 김원주도 革命運動에 加擔했다고 主張하면서 所謂 金日成一家는 모두 革命鬪士의 家庭이라고 北韓住民들에게 盲信하도록 强要해 오고 있다. 金日成에 의한 族閥政治는 다음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治委員會 뿐만 아니라 其他 重要한 權力의 位置에 그의 族屬들을 配置함으로써 本格化되기에 이르렀다.

3. 革命繼承論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앞에서도 言及된 바와 같이 金日成一家의 族閥政治를 위한 虛構的 美化를 完了한 다음 金正日의 權力繼承作業을 推進하였다. 特히 그들은 所謂 「黨員講演資料(1973. 5.)」⁽¹⁸⁾에서 金正日의 後繼必要性을 窮塞하게 正當化하려고 企圖하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의 主張에 의하면 “尊敬하는 指導者 金正日同志는 偉大한 首領님의 唯一한 後繼者이시다”라고

(17) 金日成同志略傳(平壤：朝鮮勞動黨出版社, 1972), pp. 1-8.

(18) 北傀幹部 및 黨員學習資料(서울：北韓研究所, 1977), p. 188.

〔表 8〕 金日成 族閥政治 現況

(1976년 9월 현재)

姓 名	金日成과의 關係	職 責
金 日 成		<input type="radio"/> 總秘書 <input type="radio"/> 主席 <input type="radio"/> 國防委員長 <input type="radio"/> 最高司令官 <input type="radio"/> 黨政治委員 <input type="radio"/> 黨組織 및 宣傳煽動擔當秘書 <input type="radio"/> 黨政治委員 <input type="radio"/> 政務院副總理 <input type="radio"/> 女盟中央委員長
金 正 日	長男	<input type="radio"/> 副主席 <input type="radio"/> 黨政治委員兼 秘書 <input type="radio"/> 副主席 <input type="radio"/> 民主黨委員長 <input type="radio"/> 政務院總理 <input type="radio"/> 黨政治委員
金 英 柱	親弟	
金 聖 愛	妻	
金 東 垂	姻戚	
康 良 煙	外祖父의 6寸弟	
朴 成 哲	<input type="radio"/> 徒妹夫 <input type="radio"/> 康良煙사위	<input type="radio"/> 黨政治委員兼 思想擔當秘書 <input type="radio"/> 國家檢閱委員長 <input type="radio"/> 黨政治委員 <input type="radio"/> 人民軍總政治局長(上將) <input type="radio"/> 政務院 副總理兼 外交部長
楊 亨 變	<input type="radio"/> 徒妹夫(金信淑의 夫) <input type="radio"/> 金正日 姨母夫	<input type="radio"/> 最高人民會議議長 <input type="radio"/> 同常設會議議長 <input type="radio"/> 國家政治保衛部長 <input type="radio"/> 平壤市黨 責任秘書 <input type="radio"/> 平壤市 人民委員長 <input type="radio"/> 平壤市 行政委員長 <input type="radio"/> 人民武力部 副部長(中將)
李 勇 武	姻戚	
許 錄	徒妹夫(金貞淑의 夫)	
黃 長 煉	조카	
金 炳 夏	조카 男便	
康 賢 洊	外從弟	
康 布 源	外戚	
張 正 桓	<input type="radio"/> 養女男便의 兄 <input type="radio"/> 조카가 金日成 사위 <input type="radio"/> 金正日 外戚	<input type="radio"/> 職總副委員長 <input type="radio"/> 社會科學院 副院長
金 貞 淑	<input type="radio"/> 徒妹(許錄의 妻) <input type="radio"/> 徒妹(楊亨變의 妻)	
金 信 淑	<input type="radio"/> 金正日 媽母 <input type="radio"/> 金英柱 妻家 媚戚	<input type="radio"/> 黨政治委員兼 對南事業擔當秘書 <small>※75년 10월 以後 一切 公席에 不參</small>

※ 1980年 10月 現在 朴成哲 : 黨政治局員兼 副主席
 楊亨變 : 黨中央委員兼 社會科學院長
 黃長燉 : 最高人民會議長兼 黨秘書(思想)
 金仲麟 : 黨政治局員兼 對南事業擔當秘書

강조하면서 그러한 後繼者 問題는 北韓에 있어서 共產主義政權의 運命과도
 關聯된 根本問題라고 내세우고 있다. 金正日의 後繼에 관한 그들의 根據는
 所謂 共產主義革命의 持續性와 그것을 遂行하기 위한 必要性에 있는 것 같아
 糊塗하고 있다. 그들의 表現을 그대로 빌린다면 即

首領의 革命偉業은 한 世代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世代에 걸쳐
 進行되는 長久하고 艱苦한 戰爭課程이다.

여기로부터 首領의 革命偉業을 完成해 나가기 위하여 수령의 後繼者 問題가 重大한 問題로 나선다.

首領의 後繼者 問題를 놓게 解決하지 못할 때 革命運動은迂餘曲折을 겪게 되고 艱苦한 鬪爭을 通하여 이룩된 高貴한 革命의 戰取物마저 危險에 빠뜨리는 嚴重한 事態를 超來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首領의 革命 偉業을 이어 나갈 後繼者は 반드시 首領에 絶對的으로 信奉하고 首領에게 끝까지 忠實하고 堅決한 共產主義者여야 한다.

革命의 繼承性原理를 떠나 後繼者 問題를 올바르게 解決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例外 없이 쓰라린 鎮痛을 겪어왔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무엇보다도 金日成 個人에 대한 絶對的 權力を 維持하려는 意圖에서 所謂 “首領에 對한 絶對的 充實性”을 強調하기 때문에 “首領에게 忠實하지 못한 後繼者は 後繼者가 아니라고 못박는다. 이러한 主張의 裏面에는 소련에 있어서 「레닌」과 「스탈린」 사후에 일어났던 繼承을 위한 權力鬭爭에 비추어 보아 金日成 死後에도 비슷한 類型의 權力鬭爭이 일어날 可能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可能性은 다음과 같은 그들의 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一部 나라에서는 首領에게 充實하지 못한 사람을 後繼者로 내세운 데로부터 首領을 攻擊하거나 權威를 冒瀆하고 生存하여 있는 時期에 그의 領導權을 奪取하기 위한 卑劣한 陰謀를 꾸며 嚴重한 事態까지 發生시켰다.

그것은 또한 首領의 革命偉業을 계승하는 後繼者は 새로운 世代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實證해 주고 있다.⁽¹⁹⁾

이러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立場에서 所謂 革命事業은 한 대에서 끝날 수 없으며 대를 이어 繼續되고 完成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 依해서 遂行되어야 할 歷史的 使命이라고 誇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어떠한 根據에서 金正日의 繼承을 合理化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들의 主張에 의하면 首領의 後繼者は 首領의 몸 가까이에 있으면서 革命과 建設의 實踐鬭爭 속에서 首領이 體驗하고 있는 偉大하고 崇高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 받으며 後繼者가 지녀야 할 表徵을 完成해 나간다는 것이다.

(19) *Ibid.*, pp. 188—189.

이와 같은 後繼者는 그 偉大性, 賢明性과 고연한 德性을 發揮하게 되고 그 것으로 하여 人民의 無限한 信賴와 尊敬과 欽慕를 받게 되며 大衆은 그를 首領의 唯一한 後繼者로 推戴하고 自己의 卓越한 指導者로 内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所謂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歷史的 經驗과 教訓에 비추어 보아 後繼者는 首領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이어 받을 一定한 歷史的 準備過程을 거치게 된다고 主張하면서 金正日이 首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 받는 主體偉業의 唯一한 後繼者라고 規定하는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이와 같이 金正日의 後繼問題를 正當化하고 나아가서는 그의 人格이 매우 卓越하고 또한 天才的 觀智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虛偽宣傳하고 있다. 事實에 있어서 金正日이 暴惡스럽고 殘認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처럼 狂憤해서 그의 人格的 側面을 強調하는 것은 바로 그의 繼承을 爲한 基盤을 다지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金正日의 繼承을 單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條件의 하나로서 金正日自身에 依한 金日成에의 盲從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그들의 描寫는 다음과 같은 句節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尊敬하는 指導者 金正日同志의 事務室 창가에서 온밤 꺼지지 않는 忠誠의 불빛, 점심시간마저 쉬지 않으시고 分秒를 아껴 가시며 일하시는旺盛한 事業意慾과 獻身의 精力의in 事業氣風, 이것은 수령님께 忠誠을 다하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热情, 철석같은 信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尊敬하는 指導者 同志께서는 지난날 偉大한 首領님의 誕生記念日을 國家的 休日로 定하지 않았고 더 뜻깊게 記念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였던 實情을 헤아리시고 1974년부터 어버이 首領님의 誕生記念日을 名實共히 民族最大의 慶事로 가장 큰 民族的 名節로 맞이하도록 하시였다.

偉大한 首領께서 1975年에 進行하신 外國訪問 全期間에도 무엇보다도 먼저 어버이 首領님의 安寧과 安全을 保障하는 데 最大의 心慮를 기울이시였다.

偉大한 首領님께서 타신 飛行機가 「나토」 성원국들의 上空을 지날 때에는 깊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그 地域을 無事히 通過하시였다는 報告를 받으시고야 기뻐하시며 마음을 놓으시였다. ⁽²⁰⁾

(20) *Ibid.*, pp. 192-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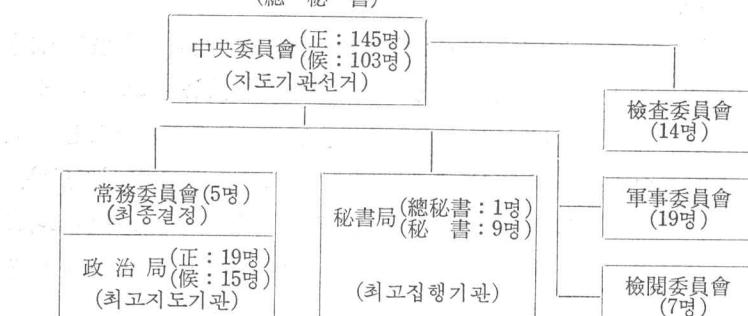
위에서 言及된 것은 金正日을 繼承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매우 유치한 內容일 뿐만 아니라 絶對權力を 維持하기 위한 根據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非合理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金正日을 虛偽的으로 美化시킴으로써 金日成 自身을 偶像化했던 것과 같은 方式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所謂 金正日의 唯一的 指導體制를 為한 것이며 權力繼承을 위한 徹底한 作業이라고 把握되는 것이다.

V. 繼承을 위한 權力構造의 改編

勞動黨은 1980年 10月에 開催된 第6次黨大會에서 黨中央委員會 委員 248名(正委員 245名, 候補委員103名) 및 15名의 黨中央檢查委員選出과 「黨大會決定書」를 選擇하였거니와 이어서 黨 6期 1次全員會議를 開催하여 最高政策決定機關인 從來의 政治委員會를 政治局으로 改稱하고 34名의 黨政治局員(常務委員 및 政委員 19名, 候補委員 15名) 및 10名의 秘書 등을 選出하였다. 特히 政治局 内에는 常務委員會를 새로 設置하여 이것이 黨務의 核心的인 機能을 遂行하도록 權力構造의 内部를 改編하였다. 이리해서 労動黨의 最高權力機關은 다음의 [圖表 2] ⁽²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央委員會, 總秘書, 政治局 常務委員會, 秘書局을 中樞로 하여 構成된 것이라고 보겠다.

[圖表 2] 労動黨 中央委員會 機構圖 (80. 10. 14)

(總 秘 書)



이와같이 北韓勞動黨이 黨政策決定機關인 政治局을 크게 擴張하게 된 것은 所謂 金正日後繼體系의 確立을 制度化시키기 위한 底意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 證據는 金正日을 政治局 常務委員(4位)으로 選出함과 同時に

(21) 李昌夏, “黨權力構造의 改編과 金正日의 登場,” 共產圈研究, 11(1980), p. 15.

黨政策을 執行하는 秘書局 成員 10名 가운데 總秘書 金日成 바로 다음 位置에 그를 浮上시키고 黨軍事委員會 委員으로까지 選出함으로써 實質的인 第2人者로 登場시켰다는 面서 찾을 수 있다([表9]⁽²²⁾, [表10]⁽²³⁾, [表11]⁽²⁴⁾).

金正日이 事實上의 第2人者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金日成·金正日 父子만이 政治局의 常務委員, 秘書, 軍事委員會의 3個 重要한 職責을 兼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黨序列 2位인 金一이 秘書 및 軍事委員會에서 除外되었고 또 3位인 吳振宇도 秘書職에서 除外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번 第6次黨大會에서 選出된 政治局員 34名 가운데서 特記해야 할 事實은 軍部勢力이 크게 浮上하였다는 것이다. 即 34名 中 軍部人物이 9名으로

〔表 9〕 歷代黨 總秘書(委員長) 및 秘書

黨 大 會	總秘書(委員長)	秘書(副委員長)
1 次 黨 大 會 (46. 8. 30)	〈委員長〉 金科奉	〈副委員長〉 金日成, 朱寧河
2 次 黨 大 會 (48. 3. 30)	〈委員長〉 金科奉	〈副委員長〉 金日成, 許哥而
合 黨 大 會 (49. 6. 30)	〈委員長〉 金日成	〈副委員長〉 朴憲永, 許哥而
3 次 黨 大 會 (56. 4. 29)	〈委員長〉 金日成	〈副委員長〉 崔庸健, 朴正愛, 朴金喆, 李鍾玉, 金昌滿
4 次 黨 大 會 (61. 9. 18)	〈委員長〉 金日成	〈副委員長〉 崔庸健, 金一, 朴金喆, 金昌滿, 李孝淳
黨代表者會議 (66. 10. 12)	〈總秘書〉 金日成	〈秘書〉 崔庸健, 金一, 朴金喆, 李孝淳, 金光俠, 石山, 許鳳學, 金英柱, 朴溶國, 金道滿
5 次 黨 大 會 (70. 11. 13)	〈總秘書〉 金日成	〈秘書〉 崔庸健, 金一, 金英柱, 吳振宇, 金東奎, 金仲麟, 韓益洙, 玄武光, 楊亨燮
6次 黨大會直前 (80. 9. 30)	〈總秘書〉 金日成	〈秘書〉 金正日, 金一, 吳振宇, 林春秋, 金仲麟, 金永南, 金渙
6 次 黨 大 會 (6期1次全員會議) (80. 10. 14)	〈總秘書〉 金日成	〈秘書〉 金正日, 金仲麟, 金永南, 金渙, 延亨默, 尹基福, 洪時學, 黃長樺, 朴守東 (10명) ※ 留任: 金日成, 金仲麟 (2명) 新任: 金正日, 金永南, 金渙, 延亨默, 尹基福, 洪時學, 黃長樺, 朴守東 (8명)

(22) 內外通信, 第198號(1980, 10, 20).

(23) 李昌夏, *op. cit.*, p. 14.

(24) *Ibid.*

〔表 10〕 政治局 및 秘書局 序列

區 分	姓 名
政治局	常務委員 (5명) 金日成(首位), 金 一, 吳振宇, 金正日, 李鍾玉
	正委員 (19명) 金日成, 金 一, 吳振宇, 金正日, 李鍾玉, 朴成哲, 崔 賢, 林春秋, 徐 哲, 吳白龍, 金仲麟, 金永南, 全文燮, 金 漢, 延亨默, 吳克列, 桂應泰, 妻成山, 白鶴林
	候補委員 (15명) 許 錄, 尹基福, 崔 光, 조세웅, 崔載羽, 孔鎮泰, 鄭済基, 金鐵万, 정경희, 최영립, 徐允錫, 李根模, 玄武光, 김강환, 이성실
秘書局	總秘書 金日成
	秘書 (9명) 金正日, 金仲麟, 金永南, 金 漢, 延亨默, 尹基福, 洪時學, 黃長燁, 朴守東

〔表 11〕 中央委員會 序列

區 分	姓 名
軍事委員會	委員長 金日成
	委員 (18명) 吳振宇, 金正日, 崔 賢, 吳白龍, 全文燮, 吳克列, 白鶴林, 金鐵万, 김강환, 태병렬, 이을설, 주도일, 이두익, 조명록, 김일철, 최상우, 이봉원, 오용방
檢閱委員會	委員長 徐 哲
	副委員長 (2명) 김좌혁, 주창록
	委員 (4명) 김창환, 전관률, 이영모, 한석판
檢查委員會	委員長 李樂彬
	委員 (14명) 강점구, 김종성, 주화종, 방기영, 정두환, 송광조, 강중한, 최치선, 이종식, 지상윤, 박영찬, 송신철, 이영순, 송금순

서 全體의 26%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 第5次黨大會에 있어서 차지했던 比率 18% (3名 即 崔賢, 吳振宇, 韓益洙)에 比해서大幅增加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의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軍部人物들 中에서 6名이 政治局 正委員이고 序列에 있어서도 核心人物 15名 中 5名 (吳振宇, 崔賢, 吳白龍, 全文燮, 吳克列)이 包含되어 있어서 軍部의 發言權이 크게 強化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軍事委員會의 19名의 委員이 現役이거나 또는 軍高位幹部出身의 豫備役이며 이 中에 金正日이 包含됨으로써 그의 軍部의

〔表 12〕 黨中央委員 新進人物現況

期 數	中 央 委 員	新 進 人 物	比 率(%)
3 次 黨 大 會	61名	42名	63%
4 次 黨 大 會	85名	56名	66%
5 次 黨 大 會	172名	85名	72%
6 次 黨 大 會	248名	175名	70.6%

〔表 13〕 政治局員 性分表

正 委 員(19명)	候 補 委 員(15명)
金日成(革), 金 一(革), 吳振宇(軍), 金正日(黨), 李鍾玉(經), 朴成哲(行), 崔 賢(軍), 林春秋(黨), 徐 哲(黨), 吳白龍(軍), 金仲麟(黨), 金永南(黨), 全文燮(軍), 金 煥(經), 延亨默(經), 吳克列(軍), 桂應泰(經), 姜成山(經), 白學林(軍)	許 錠(行), 尹基福(經), 崔 光(軍), 조세웅(未), 崔載羽(經), 孔鎮泰(經), 鄭準基(行), 金鐵万(軍), 정경희(黨), 최영립(未), 徐允錫(經), 李根模(經), 玄武光(經), 김강환(軍), 이성실(未)

革—革命 1世代 經—經濟專門家 黨—黨僚 行—行政官僚 軍—軍部 未—性分未詳

實力掌握을 制度化시켰고 따라서 金正日繼承體系에 대한 軍部의 支持를 確固하게 만들었다고 하겠다.

黨指導機關選舉에 있어서도 第 5 次黨大會에서의 黨中央委員 172名을 248名으로大幅增員시켰는데 그 中 70.6%인 175名(全體正委員 93名, 候補委員 82名)이 新進人物들⁽²⁵⁾로서 이들은 金正日繼承體系確立을 위한 布石으로 登場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表12]表照). ⁽²⁶⁾ 이번에 選出된 中央委員들 中에서 갑자기 頭角을 나타내기始作한 人物들은 大部分이 金正日이 다녔던 「萬景臺革命學院」出身들이라는 事實을 볼 때, 모든 人的構成의 核心이 金正日繼承體系確立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해서 北韓體制에서는 지난 10年間 「革命偉業의 繼承과 實踐」이라는 美名아래서 3大革命小組運動을 體系的으로 推進하면서 이를 통해 金正日의 權力世襲을 위한 制度化裝置構築에 온갖 努力を 傾注해 왔으며 그 過程에 나타난 것이 지난 第 6 次黨大會를契機로 해서 浮刻된 權力構造의 改編이라 고 하겠다.

(25) 內外通信, 第198號(1980, 10, 20).

(26) 李昌夏, p. 17.

VI. 金正日 權力繼承의 問題點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위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金正日을 崇拜받는 指導者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繼承問題는 어두운 帳幕 속에서 進行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方向에서 進行되고 있으며 또 權力構造의 形態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豫測하기 어려운 것이다. 分明한 것은 似而非「카리마스」의 「리더쉽」을 順調롭게 繼承시키기 위한 온갖企圖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原來 純粹한 「카리스마」하더라도 그것은 理論上 轉移될 수 있다고 假定되지만 世襲的「카리스마」特히 似而非「카리스마」의 世襲이란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世襲的「카리스마」의 境遇 個個人의 「카리스마」의 資質이 轉移된다고 確信할 수는 없다. 金日成自身이 絶對的 權力構造를 形成하기 위해서 날조한 그의 偶像化가 오랫동안 持續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金正日에 傳授될 것이라는保障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金日成을 盲從하는 共產主義者들이 事前에 權力繼承過程을 順調롭게 하기 위하여, 金正日에 대한 大衆의 崇拜를 誘導하기 위해서 온갖手段을 通過해서 그것을 操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指摘된 바와 같이 金日成個人에 對한 偶像化가 虛構的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金正日에의 繼承이 合理的 根據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點에서 繼承問題는 深刻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金日成은 그의 似而非「카리스마」의 「리더쉽」의 成功的 繼承에 의해서 그의 唯一體系의 持續性을 確保하려고 用意周倒하게 劃策하고 있다.”⁽²⁷⁾ 一般的으로 말해서 「카리스마」란 世襲에 의해서 傳授된다고 主張되고 있다. “世襲的「카리스마」의 境遇 그것에 대한 認識은 個個人의 「카리스마」의 資質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世襲의 繼承에 의해서 獲得된 地位의 正統性(legitimacy)에 주어지는 것이다.”⁽²⁸⁾

現在 金日成은 그의 唯一體系를 維持하기 위해서 그自身과 그의 아들 金正日의 個人崇拜를 虛偽로 結付시켜서 그自身과 앞으로 金正日이 繼承할 權力的 地位에 隨伴되는 「카리스마」를 亦是 傳授시키려고 企圖하고 있다.

(27) Yong Pil Rhee, “The Characteristic Functioning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Persistence of Charisma and Monolithic Structure,”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V, No.2 (1976), p. 19.

(28) Eisenstadt, *op. cit.*, p. 57.

다시 말해서 金日成이 이룩해 놓은 似而非「카리스마」를 客觀的인 것으로 轉移시키려고企圖하고 있다. 金日成이 期待하는 것은 이러한 似而非「카리스마」自體 보다도 그것에 依據한 正當性의 誘導에 있다고 보겠다.一般的으로 말해서 어떤 政治指導者가 世襲的 基礎위에서 選擇된다 하더라도 世襲的 「카리스마」指導者가 行政 또는 官僚幹部를 繼續해서 活用하는 利點도 있다. 「벤딕스」(Reinhard Bendix)가 指摘한 바와 같이 “重要한 「카리스마」는 이러한 非凡한 資質의 血線을 通해서 轉移된다는 信念에서 家族에게 歸屬된다.”⁽²⁹⁾ 그런데 金日成으로부터 金正日에의 繼承問題는 바로 이러한 「카리스마」의 轉移를 圓滿하게 함으로써 構築될 것이라고 생각한 脈絡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似而非「카리스마」의 世襲的 轉移를 正立化하기 위해서 金日成自身에 대한 偶像化는 그의 全家族에 대한 偶像化로 擴大되었고 그것이 다시 金正日에의 繼承에로 誘導되게 이룬 것이다. 그러나 「배버」의 表現을 빌린다면 世襲的(似而非)「카리스마」의 轉移에 의한 繼承의 體系的 企圖에도 不拘하고 「카리스마」의 타입은 本質的으로 不安定하고 또한 一時的인 것이다.

理論的 觀點에서 본다 하더라도 時間의 經過에 따라서 「카리스마」는 日常化되고 또 이 過程이 進展됨에 따라서 그 「카리스마」에 依據했던 政治의 樣相이豫測하지 않은 方向에서 表出된다. 金日成이 그의 家族 또는 族閥의 似而非「카리스마」를 堅固하게 하려고 繼續企圖하는 한편 金正日에의 繼承問題를 順調롭게 解決하기 위해서 制度的 「카리스마」(institutional charisma)를 確立하려고企圖한다는 것은 매우 逆說的인 現象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個人的 또는 族閥的(似而非)「카리스마」와 制度的 「카리스마」를 同時に 確立하려는企圖가 어찌한 樣式으로 調節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調節이 可能하도록 強要될 것이지만 時間과 政治의 狀況의 變化에 따라서 그 乖離는 現實的 次元에서 深化될 것이 분명하다. 事實上 多數의 社會學者나 政治學者가 主張하고 있는 바와 같이 制度的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의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 of charisma)는 「카리스마」의 非人格化(depersonalization of charisma)를 隨伴한다. 根本的으로 보아 「카리스마」의 非人格化는 組織의 合理的 및 法的 또는 傳統的 타입에

(29) Reinhard Bendix, *Max Weber: An Intellectual Portrait* (Garden City, N.Y.: Doubleday, 1960), p. 301.

로 誘導된다.⁽³⁰⁾ 「카리스마」의 制度化 過程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介在된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初期의 指導者の 消去 即 繼承問題라고 하겠다. 어떤 運動의 創始者에 대한 權威的 地位가 個人的인 資質과 關聯되고 있으므로 그것은 결코 繼承者에게 까지 事實일 수가 없다. 繼承者는 創始者가 獲得한 權威를 第二次的으로 또는 間接的으로 正當化하여야 하는 不利한 位置에 놓인다는 것이다. 비록 金日成의 抗日獨立鬪爭이 部分的 으로 事實이 認定된다 하더라도 그 抗日獨立鬪爭에 의거한 權威의 位置가 個個人的 것인 限에 있어서 그대로 繼承者에게 傳授될 수 없는 것이다. 繼承者의 權威는 어떤 特殊한 條件 아래서도 媒介的으로 正當화될 뿐이다. 「카리스마」의 指導者の 非凡한 個個人的 資質이 立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繼承者에 있어서는 그리 큰 意味가 주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VII. 繼承後 權力構造 變化의 展望

金日成의 絶對權力이 似而非「카리스마」에 依據해서 오랫동안 持續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變化 없이 維持될 수 있다고 假定할 수 없다. 勿論 金日成은 執權한 以來 自身에 挑戰해 오거나 또는 挑戰해 올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되는 境遇 여러 차례에 걸쳐서 肅清을 斷行해서 마침내 金日成의 唯一權力體系를 構築하게 되었다. 이렇게 構築된 權力體系라 하더라도 그것이 金正日에게 完全히 繼承된 다음에는 새로운 力動關係의 變化를 囧避할 수 없다. 勿論 金正日이 繼承後에도 不動의 權座를 維持하고자 制度的 統制權을 掌握할 것임에 틀림 없지만 다른 共產主義國家 特히 소련과 中共의 境遇에서 보는 바와 같이 繼承을 圍繞한 權力鬪爭이라는 過程을 不可避하게 겪게 마련이라는 點과 그러한 共產主義國家에서도 볼 수 있는 世襲의 權力移讓은 더욱 深刻한 鬪爭을 誘發할 可能性이 크다고 假定된다. 金日成에게 주어진 그 追從者들의 忠誠心이 金正日에게 그대로 轉移될 것이라는 아무런 保證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一定한 期間에 걸쳐서 金正日의 權力構造가 表面上 安定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急變하는 國際政治의 흐름 特히 中·소로 부터 또는 다른 影響力의 波長 때문에 일어나는 權力構造에의豫測할

(30) Talcott Parsons, *Politics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p. 105.

수 없는 影響의 結果,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波動에서 일어나는 權力構造 内의 力學的 變化 等은 金正日의 繼承體系에 對해서 重大한 試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假定된다. 北韓政治體制 內外에서 생기는 變化가 權力構造의 位階秩序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金日成이 絶對權力에 依據, 唯一體系를 構築하고 그것에 의거한 金正日의 繼承體系도 결코 下降式支配樣式을 無條件 强要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從來에는 重要한 政策決定에 參與할 수 없었던 追從者들 또는 支持者들이 漸次的으로 政治的 發言을 強化하게 될 것이豫想된다. 金正日이 繼承體系를 維持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動搖 또는 權力構造 内에서의 龜裂이 表出된다면 그럴수록 金正日은 그 自身을 繼續 支持해 주는 分子들의 聯合를 더욱 鞑固히 하려고 企圖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聯合形成은 一種의 紅正을 통해서 可能하며 紅正의 代價支拂은 支持者들의 位置強化라는 것으로 歸着될 것이다.

萬一 金正日에의 權力繼承이 確固하게 構築되기 以前에 金日成이 死亡하거나 또는豫期치 않았던 理由로 말미암아 權力의 位置로 부터 사라지게 된다면 金正日의 權力基盤과 「리더쉽」은 보다 빨리 不安定하게 될 것이다. 「벤더스」에 의하면 「카리스마」의 「리더쉽」을 계승한 者들은 危機의 經過에 따라서 모든 要素가 表出된 후에도 個人的 「카리스마」를 保存하는 問題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事實에 있어서 金正日은 어띠한 形態에서라도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지 않을 뿐 더러 매우 變態的 性格의 所有者 이므로 그의 權力維持를 위해서 어띠한 恐怖手法도 서슴치 않고 無慈悲하게行使하거나 또는 그 過程 中에서 權力鬭爭이 더욱 激化될 可能성이 相對的으로 增加될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金正日 權力構造 内에 있어서 力學的 움직임이 結果的으로 反體系가 發展할 可能性을 誘因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反體系的 움직임의 조짐은 權力體系의 變化에 對해서 重大한挑戰으로 發展될 때까지 어느期間에 걸쳐서 潛在的인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金正日이 비록 金日成의 似而非 「카리스마」를 世襲的으로 繼承한다고 해도 그것은 必然的으로 不安定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배버」와 다른 社會學者들도 純粹한 「카리스마」의 境遇, 그것은 어떤 特定한 指導層에게 集中的 權力を 附與하는 根源이 되지만 결코 描寫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萬

一 金正日의 世襲化된 革命的 任務가 變化된 狀況 아래서 그 追從者들 또는 支持者들에 의해서 認定되지 않고 오히려 否認된다면 金正日의 世襲的 似而非「카리스마」도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金正日의 似而非「카리스마」의 繼承은 그 根據를 喪失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自身과 追從者들 또는 被支配層間의 關係가 不安定한 것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純粹한 「카리스마」나 또는 似而非「카리스마」는 결코 制度的인 것도 아니며 또한 永久的인 構造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金正日은 繼承後에 一定한 期間에 걸쳐서 制度的 統制力이나 組織力 操作에 의해서 似而非「카리스마」를 維持하려고 온갖 努力を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過度的 段階에 있는 權力體系는 漸次的으로 濟蝕될 수 밖에 없다. 왜 그려냐 하면 純粹한 「카리스마」의 境遇에도 그것은 個人的 的能力에서 나온 것 以外에 그 正當性으로서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카리스마」는 繼續해서 非凡한 또 超越的인 것처럼 立證되어야 하겠지만 大部分의 境遇 實現 또는 立證 不可能한 것이다. 萬一 어떤 「카리스마」의 指導者가 그러한 能力의 所有者라고 자처한다면 그 自身이 歷史的 行蹟을 實證해야 할 것이지만 金正日의 境遇는 全혀捏造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金日成은 그自身의 偶像化를 形成하기 위해서 歷史를 造作할 수 있어도 金正日은 그것 조차 造作, 試圖할 수 없으리만큼 年少한 것이다.

社會學者 리비 (Marion J. Levy, Jr.)도 指摘한 바와 같이 「카리스마」의 리더쉽의 役割은 언제나 成就된 役割이다. 歷史的으로 보아 「알렉산더」大帝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指導者들은 그의 「카리스마」의 世襲을 安定的으로 規制할 수 없었다.⁽³¹⁾ 위에서도 言及했지만 金日成과 金正日이 似而非「카리스마」와 그 世襲的 繼承을 위해서 온갖 努力を企圖한다손 치더라도 그들의 「리더쉽」과 權力體系가 或種의 制度化된 配置나 合意에 依據한 것이 아니라면 그 繼承은 循環的 危機에 直面하게 될 것이 分明하다.

金日成의 似而非「카리스마」와 金正日의 世襲的 繼承自體가 共產主義政治에 있어서도 흔히 볼 수 없는 特殊現象이라고 하겠다. 金日成과 金正日은 北韓大衆으로 하여금 왜 그들 父子에게만 忠誠해야 되는 가를 묻게 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들만을 위해서 無條件 服從하게 하고 또 生命을 바치도록 強

(31) Marion J. Levy, Jr., *Modernization and the Structure of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 452.

制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들 父子가 族閥政治를 合理化하면서 絶對權力を 行使한다손 치더라도 그들의 權力體系는 不可避的으로 不安定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短期的으로 보아서 그들은 그들의 政策을 急速히 또 極端的으로 轉換시킴에 있어서 極限的 伸縮性(maximum flexibility)을 發揮할 수 있다고 假定되나 本質的으로 不安定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³²⁾

「리비」는 社會學的 觀點에서 世襲的 繼承에 의한 「카리스마」의 「리더쉽」이 두가지 側面에서 不安定과 關聯된다고 強調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첫째 「카리스마」의 指導者는 不幸한 結果를 가져오게 하는 政策을 擇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指導者는 體系에 대해서 長期的 安定을 가져 올 수 있는 正確한 決定을 내리게 될 可能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繼承問題와도 直結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不安定의 根源이 크면 클수록 繼承問題는 그만큼 深刻해진다. 그러한 指導者の 「카리스마」의 權力이 크면 클수록 繼承은 더욱 더 어려운 問題라고 여겨지게 된다.⁽³³⁾ 이러한 觀點에서 「리비」는 追從者들이 그러한 「카리스마」의 指導者에 盲目的으로 服從하면 할수록 그와 그 繼承者間의 間隙은 더욱 增大된다고 假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金日成一家의 似而非「카리스마」의 「리더쉽」에 의해서 또는 世襲的 繼承에 依해서 支配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政治體制가 어떠한 形態로 變化되는 간에 本質的으로 不安定의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 또는 金正日이 革命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繼續해서 그들의 族閥政治를 強行하면 할수록 彈壓 또는 恐怖手段을 憲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革命의 永久的 實踐을 繼續하면서 또 그것에 의거해서 族閥政治를 正當화한다 하더라도 權力體系內의 龜裂을 防止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促進시키게 될 可能성이 相對的으로 增加될 뿐이다. 이러한 狀況이 助成된다는 것을 假定해 본다면 北韓共產主義政治體制는 더욱 더 重壓 아래서 作動하지 않을 수 없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어떤 特定한 一人의 指導者が 모든 妥當한 能力を 갖출 수 있는 確率이 稀薄하다는 것을 認定할진대 하물며 北韓社會가 앞으로 多小라도 近代化의 過程에로 접어들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暫定的으로 金正日의 權力繼承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다고 假定하더라도 그는 金日成의 死後에 있어서 權力構造 內外로 부터 오는 重壓에 대해서 對

(32) *Ibid.*, p. 451.

(33) *Ibid.*, pp. 451-452.

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萬一 權力構造內에서 龜裂의 結果가 露出되게 된다면 金正日은 그것을 規制하거나 또는 過激한 手段에 依해서 不平分子들 또는 反對派를 肅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權力構造가 盤石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假定할 아무런 根據가 없는 것이다. 反對로 北韓政治體制를 腐蝕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 政治體制가 龜裂로 말미암아 支配大衆을 効果的으로 動員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럴수록 政治體制에 대한 重壓을 더한층 規制하기가 어렵게 된다. 아무리 金日成이 唯一體系를 構築하는 데 어느 程度 成功하였고 또 金正日의 權力繼承이 成就될 것이라고 假定해도 似而非「카리스마」의 維持가 오랫동안 持續될 수 없는以上 政治體系와 環境間의 相互作用은 金正日의 唯一的 權力體系內에 力學的 變化를 刺戟하게 될 것이다. 그 變化는 비록 權力體系內의 上層에서 始作될 뿐만 아니라 時間의 經過에 따라서 社會의 底邊으로부터의 上向의 要求와 壓力에 의해서도 加速化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때 金正日의 唯一體系는 매우 深刻한 重壓 아래서 作動해야만 하는 것이다.

現在의 段階에서 볼때 北韓政治體系에서 一元的 權力構造를 維持함에 있어서 似而非「카리스마」의 要素가 短時日內에 또 全的으로 消滅되리라고 判斷할 根據가 없다. 그러나 豫測이 制限된 條件 아래서 可能하다면 그러한 似而非「카리스마」와 繼承된 似而非「카리스마」가 一定한 期間後에는 退色되거나 部分的으로 消散될 可能性이 漸次 增加된다는 點이라고 하겠다. 金日成一家의 族閥政治와 그것을 위한 似而非「카리스마」의 「리더쉽」의 繼承構築은 權力構造內에서 그리고 體系外의 環境에서 오는 劇的影響으로 말미암아 어떤 變數들이 作用해서 浸蝕되거나 또 變化될 수 있다. 이 모든 現象은 本質的으로 金日成으로 부터 金正日에의 似而非「카리스마」의 世襲의 轉移過程에서 派生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唯一的 權力構造의 浸蝕現象은 境遇에 따라서 權力集團間의 力學的 相互作用의 結果로서 나타난 非意圖的 副隨現象에 의해서 促進될 수도 있다고 假定된다. 이 點은 獨裁政治가 內包하고 있는 本質的 矛盾의 激化에서 緣由된 것이다.

맺 는 말

北韓政治體制는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全體主義的 支配樣式의 極端的形態이며 또 金日成을 頂點으로한 權力構造도 權力엘리트의 複合體라고 想定될 수 있다. 30餘年間에 걸쳐서 金日成이 獨裁權力構造를 確立하기까지에는 수 없이 피의 肅清을 斷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盲從하는 追從分子들과 특히 그의 族閥들을 權力構造內의 戰略的 地位에 配置시킴으로써 族閥政治의 基盤을 鞏固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全體主義的 支配樣式과 族閥政治는 現代의 어떠한 共產主義政治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異變이라고 하겠다.

지난 1980年 10月에 開催된 第6次勞動黨大會에서 金正日에의 權力繼承을 위한 制度化가 明白히 表出되었거니와 이에 의해서 金正日은 實質적으로 第2人者의 實權者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金正日이 政治局內 常務委員會 成員 5名 中에서 4位, 秘書局 成員 10名 中에서 2位, 黨軍事委員會 成員 18名 中에서 3位를 차지함으로써 金日成의 다음 가는 位置를 굳히게 되었다. 이리해서 金日成自身이 「당 중앙의 영도체제가 튼튼히 확립된 것을 당전설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라고 力說하게 되었다. 그러나 金日成의 絶對權力正當化를 위한 似而非「카리스마」와 革命의 繼承이라는 名分으로 不合理하게 構築된 金日成 및 金正日 權力體系가 金日成 有故時 또는 死亡 후에도 存續될 것인지 그 與否가 매우 의심스럽다. 政治의 世界에서豫測이란 거의 不可能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여기에서 先行 共產主義體制들의 事例에 비추어서 分明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絶對權力의 內的 力學關係變化와 似而非 카리스마의 內在的 不安定要因으로 말미암아 繼承을 圍繞한 危機가 다가오게 된 것이며 이러한 危機 속에서 表出된 權力鬭爭은 結果的으로 寡頭體制가 등장될 可能性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可能性은 물론 北韓社會의 構造的 變化와 實用主義的 經濟政策路線의 追求에 의해서 더 促進될 수 있다고 하겠다.